

▶ 매일 INDEX



5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2022년 1월 24일 월요일(음 12월 22일) 제2949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로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최고의 119서비스로 '안전·행복 전북' 구현

도 소방본부, 미래 소방발전 청사진 제시

"최고의 119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도를 구현하겠다"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는 '소방본부'가 디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별도로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 구현을 위해 미래 소방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지난 21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4대 전략과제와 10개 주요실행계획을 수립해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민들의 안전을 터리 '소방 인프라 확대'

장수군에 특수구조·대응조직과 교육·훈련시설 등을 집적화하는 '소방 안전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77억 원이 투입되며, 대규모 재난에서의 대응 학제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12월 무주군과 임실군에 '소방서'를, 오는 4월에 김제·김산동, 2024년 전주 조촌동에 '119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에 도움주는 '따뜻한 연대 구축'

전북도정 발전방향과 부합해 신산업지도 구축과 연계된 선제적 소방안전 대책으로 '신단 안전파트'를 운영, 각종 특수 화재로부터 견고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소방차를 개발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 소방산업과 전북 특장차 산업을 결합해 전기 소방차 개발기술을 선점할 예정이다.

또, 소방관·의용소방대원이 마련한 기금과 사회복지단체 후원금을 통해 저소득가구에 주택을 신축해 주고, 이재민 보호를 위해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긴급 생활비(50만 원)와 화재피해 주택의 수리 또는 이동식주택을 새롭게 지원함으로써 도민과의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

소방 인프라 확대·따뜻한 연대 구축·선제적 예방 강화

정교한 대응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 10개 실행계획 수립

대된다.

▲첨단기술 기반 '선제적 예방 강화'

호남권 최초로 공공기관·산업·학계 등 소방 데이터 축적·유통·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현재 전북의 지리·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 정책 밸류·추진 등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계절별 안전사고 유형 통계를 분석해 기상특보 발령 시(한파·건조·폭염·강풍 등) 화재위험경보를 동시에 발령하는 안전 예보제를 시행,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 재난예방의 현실화라는 성취를 거뒀다. 아울러,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관제 시스템 접목으로 신고자 음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치정보·신고내용 등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다.

올해는 DB보강·음성인식 전사학습·재난대응 매뉴얼 탑재 등의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4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추진

▲현장에 강한 정교한 대응 시스템 구축

전북도에는 현재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이 17단지 57개동 있으며, 55m 고가시티리체2대'가 배치돼 있지만, 가용범위 한계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70m 고가시티리체'를 올해 1월 말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입하고, 주요 신도심(고층밀집)에 옮겨놓을 때는 고층화재 대응한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행중인 헬기(BK117B-2)가 기령 28년으로 장기운항에 따른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어 금년 9월경 중형급 소방헬기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공원계획변경 용역계약은 오는 2월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약 1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지난 21일 리한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 세계혁명예술전주국제포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학혁명과 세계 근대혁명의 만남

제1회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

일본 근대혁명·독일 농민전쟁·러시아 혁명

아일랜드 농민·체계바라 등 문학·예술로 소개

떼는 체 게바라를 소재로 한 문학과 영화를 다뤘다.

이날 학술포럼은 유튜브 '전주시 LIV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

중계됐으며, 포럼이 끝난 후에는 전주시청 책기동도서관에서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 '원네이션'이 상영됐다. 포럼 이틀째인 지난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본 근대혁명기를 소재로 한 '비립의 겸 신선조'와 우리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녹두꽃'이 각각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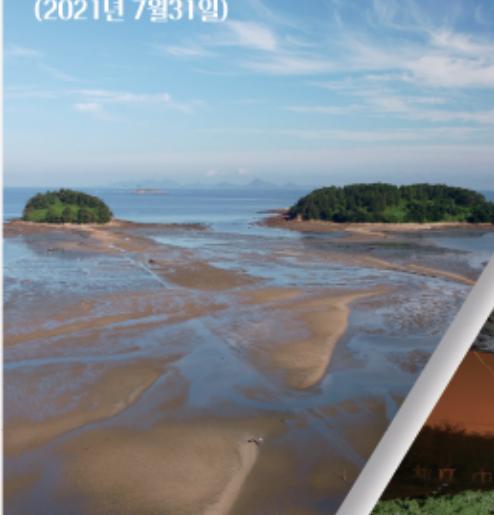
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발판 삼아

▲동학농민혁명과 예술의 접목 ▲동학 관련 서적 번역 등 동학의 세계화 ▲현명도서관 조성 등 전주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동학 관련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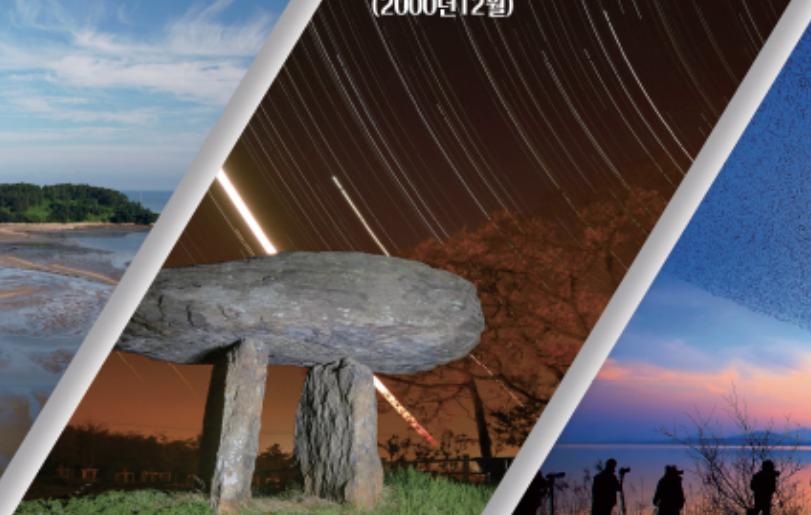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을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규명하고 해석해온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명의 예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국제포럼의 주제를 건축과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시켜 전시와 공연, 영화 등을 결합한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 고창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2021년 7월 3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2000년 12월)



유네스코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2013년 5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고창판조리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고창농악 (2014년)